

김경진 교수의 섬기는 자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 이해하기

4. 누가 소개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신학의 제자도)

※ 오늘의 포인트

- ① 복음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춘 책입니다.
- ② 복음서 해석의 두 가지 원리: 문맥과 차이
- ③ 본문 상의 차이점: 취임설교와 제자 소명 사건.
- ④ 제자도의 조건으로서의 회심
- ⑤ 제자도의 조건으로서의 전적인 포기

공관복음서는 통일성(unity)과 다양성(diversity)을 모두 갖춘 책이다. 통일성(統一性)이라 함은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사역)과 가르치심(교훈)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로서의 동질성 혹은 복음서 사이의 공통분모를 가리키는 표현이다.¹⁾ 통일성에 대한 일반적 전제는 사역의 핵심으로서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교훈의 핵심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이다.²⁾ 반면에 다양성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결국 복음서 기자의 의도와 동기, 즉 복음서 기자의 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읽는 본문이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일성의 문제는 대체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가지 커다란 범주에 의거하여 풀이될 수 있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성의 문제는 일단 각 복음서 전체의 주제와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 그 해답을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사실 아직까지 공관복음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총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

1) 복음서의 통일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은 사도행전 1:1로, 여기에 언급된 poiei/n과 dida.skein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을 요약해 준다; 김경진, 『성서주석 사도행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6-57.
2) 김경진, “공관복음 문제: 종합과 조화 방법의 장점 그리고 한계,” 『목회와 신학』146 (2001/8), 109-115.

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필자가 다른 곳에서 지적한 대로, 성경학도와 설교자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끌어들이어 혼합함으로써 여전히 “디아테사론(Diatessaron)적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즉 설교 본문으로 공관복음서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그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처럼 설교하고,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처럼 설교하는, 실망스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합하여 이해하도록, 쉽게 말하면 네 권의 책을 섞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글은 각 복음서 기자의 신학에 근거하여 주어진 본문을 해석하는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돕고자 의도되었다. 실례로서 제시된 본문은 누가복음 5:1-11로서 예수님이 최초로 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복음서 해석의 두 가지 원리

공관복음서를 해석할 때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해당 본문이 위치한 문맥과 다른 복음서에서 해당 본문이 위치한 문맥(context)의 차이다.³⁾ 우리가 본문의 문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서가 연대기적으로 기술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일대기, 즉 주님의 사역의 순서(order)는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사역의 순서는 저자에게는 자료의 배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가 주어진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배열하는 것은, 곧 그 저자의 의도와 동기를 반영한 것이고, 이는 곧 그만의 신학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본문이 위치한 문맥에 대한 적절한 관심인 것이다.

우리가 유념할 것 또 다른 사항은 해당 본문이 각기 다른 복음서들에서 드러내는 차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차이는 성령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저자의 신학적 작업의 결과로 이해되는데, 단어나 구절을 추가 혹은 생략하기도 하고, 본문 내에서 그 위치를 바꾸기도 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공관복음서를 이해하려는 연구자나 설교자는 항상 주어진 본문을 상호 비교, 관찰함으로써 무엇이 추가되고 생략되었

3) Fee와 Stuart는 이것을 수평적·수직적 사고라고 부른다 (G. D. Fee & 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2], 110-116; 한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 1995).

는지, 혹은 단어나 구절이 주어진 본문 내에서 위치가 바뀌지지는 않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자료의 각기 다른 배열이나 복음서 간의 다양성을 통일성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여, 그 차이를 무시하는 ‘의도적 태만’을 경계해야 한다.⁴⁾ 어찌하여 다르게 배열된 문맥을 하나의 통일된 구조 혹은 순서로만 이해하려 하는가? 또 같은 말씀(saying)이나 이야기(narrative)를 다르게 기록함으로 존재하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조화(調和)만을 중시한 나머지 통일성의 견지에서 하나로 묶거나 섞으려 하는가? 이것은, 거듭 말하지만, 디아테사론적 사고방식에 비롯된 그릇된 해석 방법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서가 모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미세한 차이들도 그에 상응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숨겨진 의도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또는 그 의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비성경적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본문을 이런 원리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드러나는 결과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도록 하자.

본문 상의 차이점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본문이 등장하는 문맥은 서로 다르다. 문맥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두 자료설(two material hypothesis)에 근거해, 일차적인 비교의 대상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근거로 삼은 후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바꾸었는지, 즉 확대하거나 생략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우선 그것들을

4) 어떤 이는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일일이 교인들에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그것은 알면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의도적 태만을 용인하는 듯하다(변종길, “복음서 상호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146 [2001/8], 97). 물론 복음서 상호간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르게 쓰여진 까닭에 4권씩이나 존재하고 있는 복음서의 차이점을 그냥 덮어버리려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르게 쓰이도록 역사(役事)하신 성경의 제1저자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경시 혹은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마가복음을 비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본적 자료로 삼아 자기들의 복음서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일차적 비교의 대상이 마가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경우, 제자 부르심 사건은 주님이 첫 설교인 취임 설교를 하신 직후에 등장한다(막 1:16-20).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4:17 = 취임설교; 4:18-22 = 제자 부르심). 그러나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순서가 이 두 복음서들과 사뭇 다르다. 우선, 첫 설교에 해당하는 취임 설교의 내용과 그 설교가 위치한 문맥이 다르다(눅 4:16-30). 마가·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계시다.⁵⁾ 또한 취임 설교의 내용도 다르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에 대한 준비로서의 회개에 대한 강조라는 측면에서 동일선상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님의 취임 설교에서 이 두 복음서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매우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7-18)

이런 차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가 주님의 사역의 성격을 마가나 마태와는 다르게

5) 이런 차이에 대해 Plummer는 누가가 여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반해(Alfred Plummer,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Edinburgh: T & T Clark, 1922], 118), Creed는 누가가 기본적으로 마가의 기사를 참고하되 이를 두 방향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취임설교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의 프로그램을 선포하는 기회로 만든다. ②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례를 들어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소개한다(J. M. Creed,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London: Macmillan, 1950], 65-66). 물론 이 두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주님이 그 공생애 중 두 번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것으로 전제한 후, 누가복음의 사건이 첫 방문이고, 마가와 마태복음에서의 방문은 두 번째 것으로 보는 해석이다.

6) 막 1.15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 4.17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적·종교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당한 소자 및 약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 사역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누가의 강조점은 이어지는 그의 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취임 설교와 나사렛에서의 사역 이후 누가는 가버나움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소개한다. 즉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이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이 등장한다(눅 4:31-37). 그런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는 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른 장면 이후에 등장한다(막 1:21-28).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은 생략되었다.

누가복음에서 가버나움 회당 사건 이후 등장하는 사건은 시몬의 장모(丈母)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다(눅 4:38-39). 그리고 이런 순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이 두 복음서와는 달리,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은 산상설교가 끝난 후 8장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 이후에 비로소 기록된다(마 8:14-17). 그런데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은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가 끝난 후 7장에서 등장한다(눅 7:2-10). 이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서가 그 사건의 순서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의 치유 사건 후에 저녁 무렵 시행된 병자들 치유와 귀신추방 사건이 등장하고(눅 4:40-41), 그 후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눅 4:42-44). 그리고 이런 순서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일치한다. 이것은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막 1:32-39). 마태복음의 경우는 마가나 누가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마태복음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요약해 보면, 마가복음은 주님의 취임 설교 이후 제자 부르심 사건이 등장하고, 이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설교와 귀신 추방과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등장한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마가복음과는 다른 내용의 주님의 취임 설교 이후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설교와 귀신 추방과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온다(눅 5:1-11).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부르심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등장한 이후에 제자 부르심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다.)⁷⁾ 한 마디로,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 | | |
|------|--------|--------|
| 마가복음 | 제자 부르심 | 장모 치유 |
| 누가복음 | 장모 치유 | 제자 부르심 |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순서상의 차이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누가가 부여한 본문상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본문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마가복음의 제자 부르심 사건(막 1:16-20)과 누가복음의 그것(눅 5:1-11)은 그 내용이 사뭇 달라서 마치 다른 사건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사건은 오히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복권(復權) 사건과 유사하게 보인다(요 21:2-14).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찾아오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던지자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대략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 이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일깨우는 복권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다.⁸⁾ 아울러 결정적인 차이점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은 주님의 사역 초창기에 등장하나,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부활 이후의 사건이자 주님의 마지막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상의 비교를 참작할 때, 비록 요한복음과 형태상의 유사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사건에 대한 해석적 확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는 왜 그리고 어떻게 마가복음을 확대해 해석했

7) Morris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 부르심 사건이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고기 잡는 사건 때문에 다른 기사(記事)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Leon Morris, *Luk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1986], 112), 이런 주장은 주님이 동일한 제자들을 두 번 불렀다는 황당한 결과를 낳고 만다. 한편, Creed는 두 기사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아마도 누가가 여기서 마가복음의 기사에다가 베드로의 역할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다른 전승(이야기)을 연계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Creed, *St. Luke*, 74).

8) 어획(漁獲) 사건과 관련하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Plummer는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Plummer, *S. Luke*, 147). 한편, Ellis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세 기사의 공통점을 이들 기사들이 모두 베드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제를 다룬 이야기 모음의 일부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E. Earle Ellis, *The Gospel of Luke* [The Century Bible; London: Nelson, 1966], 102).

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마가는 주님의 제자 부르심 사건의 핵심만을 간략하게 소개한 반면에, 누가는 그 사건의 핵심이 되는 인물인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심리적 변화, 즉 회심에 초점을 두어 기록했고, 둘째로, 그와 함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누가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특징 하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신학에서의 제자도의 조건

제자도의 조건으로서의 회심(回心)

왜 누가는 베드로의 회심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일까? 누가가 최초의 네 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가나 마태보다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베드로의 회심 장면이다. 사실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를 비롯하여 다른 어부들은 자신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나선 것으로 되어 있다(막 1:16-20; 마 4:18-22). 그러나 누가는 이 사건을 그렇게 간단히 기록하지 않는다. 누가의 묘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전혀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수인 예수님께서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근히 불만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⁹⁾ 그것은 누가복음 5:5에서 암시된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우리말 번역은 “말씀에 의지하여”란 표현으로 인해 베드로의 이 말이 매우 신앙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문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말씀에 따라”(at your word; auf dein Wort)이다. 베드로의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다른 증거는 8절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¹⁰⁾ 어째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상황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에게 부정한 자신을 떠날 것을 간청하는가? 또한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5절에서는 “선생”이었으나 8절에서는 “주”로 바뀌었다.¹¹⁾ 이것 역시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 즉 회심의 한 표현으로

9) 이런 불만을 Morris는 “함축된 책망”(an implied rebuke)이라고 불렀으며(Morris, *Luke*, 112), Ellis와 Schweizer는 “베드로의 의심”(Peter's doubt)이라고 표현했다(Ellis, *Luke*, 103; E.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Luke*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104).

10) 결국 주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이라고 Ellis는 설명하고 있다(Ellis, *Luke*, 103).

11) 물론 “주”(主)가 존칭의 의미를 띤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LXX에서 “주”(ku,rioj)는 하나님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누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회화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누가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를 진정한 회심임으로 보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가가 제자도의 이런 요소를 부각하기 위하여 자신이 저술한 두 권의 긴 책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가복음에서 회심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 설교를 듣고 찾아온 무리와 세리와 군병들이다(눅 3:10-14). 이 세 그룹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 이까?”(what shall we do?)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권면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또한 what shall we do?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2:37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누가가 그만큼 회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회심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또 다른 인물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리코의 세리장 삭개오이다. (눅 19:1-10) 사실 이 사건이 위치한 문맥을 보면, 부자 삭개오는 그 앞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영생(永生)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처방을 들었지만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처럼 현장을 떠나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었다(cf. 막 10:22-23; 마 19:22-23; 눅 18:23-24). 이 사건 이후 소경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눅 18:35-43), 그 다음에 삭개오 사건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삽입된 소경 치유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영생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하 고민 중인 부자 관원은 마치 소경 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처해 있음에 반해, 기꺼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가진 바 재산 모두를 포기할 용의를 내보인 삭개오는 영적으로 눈을 뜬 것으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인인 자기에게서 예수님이 떠나도록 간청하는 것은 그를 진정한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주”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Plummer는 잘 표현했다: “It is the ‘Master’ whose orders must be obeyed, the ‘Lord’ whose holiness causes moral agony to the sinner(Dan. x. 16).” (Plummer, S. Luke, 145).

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누가가 이방인과 죄인처럼 간주되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의 과정을 이처럼 자세하게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누가 신학의 제자도의 한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즉 누가는 진정한 회심을 제자 됨의 요건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회심과 관련해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다(행 9:1-9; 22:2-21; 26:2-23). 바울의 회심이 베드로나 삭개오처럼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소개되는 것은 누가가 그의 회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 준다.

누가가 주님을 만난 인물들의 회심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술한 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이런 과정의 회심을 겪었기 때문일 수 있다.¹²⁾ 이들이 모두 주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가는 주님을 따르기 전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진정한 회심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자도의 조건으로서의 ‘모든 것’의 포기

누가가 사건의 도치를 통하여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눅 5:11). 이 구절에 대응하는 마가복음의 구절은 1:18과 20절인데, 이들 구절과 누가복음 5:11과의 두드러진 차이는 “모든 것”(panta)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면 왜 마가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누가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누가가 사건의 도치(倒置)를 통하여 유도한 결과일 수 있다. 즉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부르심 사건이 후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등장함으로써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직까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먼저 발생한 이후에 제자 부르심 사건이 등장함으로써 제자들이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시몬의 장모

12) White는 삭개오와 사도 바울의 회심 외에 사도행전 10장에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된 고넬료의 회심을 거론하며, 아마도 누가의 회심이 고넬료의 회심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화이트, 『누가 신학 연구』, 22-24.

치유 사건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사건이 되었으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갖지 않았다. 따라서 누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자 됨의 조건으로서 소유의 포기를 강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누가 공동체를 향한 교훈이 됨으로써,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속박과 구속을 상징하는 재물과 가족 등 “모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가 제자 됨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얻어지는 결론은, 회심은 소유와 가족의 포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또 다른 회심의 경우로 언급되는 삭개오의 회심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는 이런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재물 및 소유의 포기가 온전한 회심의 징표로서 이해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그가 기존에 누렸던 모든 특권과 혜택을 포기했다는 바울 서신 자체의 증언을 고려할 때(빌 3:4-9; cf. 고후 11:22-27), 우리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에서 누가가 지적한 제자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글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서의 다양성에 근거한 본문 해석의 한 실례로서, 주님이 최초의 네 명의 어부 제자들을 부른 사건을 살펴보았다. 누가는 이 사건을 마가·마태복음과는 달리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 이후에 배열함으로써, 그리고 베드로의 회심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철저한 회심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와 각오를 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 결과 누가는 제자도의 조건으로서 두 가지 요소, 즉 철저한 회심과 그 증거로서의 소유 및 가정의 포기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제자도의 조건으로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마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에 변화를 주어 자신의 제자도 신학을 표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누가가 이런 시도를 통하여 얻어낸 결론은 복음서 사이의 다른 많은 차이점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 유용한 본보기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이런 시도는 향후 복음서 및 누가 신학 연구를 위한 하나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용점

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삶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헌신 (total commitment)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